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스무 번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10월부터 매달 넷째 주 예배 직후에 교회에서 목장모임이 진행됩니다. 성도의 교제 대신 목장별로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 11월 2일 주일예배 후 어린이들을 위한 Trunk-Or-Treat 행사를 갖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도 진행됩니다.
5. 미네소타 한인교회 목회자 연합회 친교모임이 10월 27일 월요일 다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31일 : 안지현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위충일 / 설교번역: 한예은
11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추수감사 공동식사 : 11월 16일 주일 예배 후

*성서일과 Lectionary (제 43주)

렘 14:7-10, 19-22, 시 84:1-7, 딤후 4:6-8, 16-18, 눅 18:9-14

교회세운날 2017.6.11

25-43 10월 26일 (성령강림 후 스무 번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 말씀 나눔 *

1. 오늘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와 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2. 이 세상과 내 주변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경이로움으로 대할 수 있기 위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눕시다. (다음 모임에서는 그것을 실천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과 변화들을 나눴도록 합니다.)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롬 11:34-36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박가은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7장 9-11절 ——— 인도자

설교 ——— 경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기 ———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워싱턴 사림의 교회 김영봉 목사님과 뉴스엔조이의 김종희 대표가 13년 전부터 미주의 목회자들을 돕고자 시작하여 매년 한 번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이번엔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였습니다. 건강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건강한 교회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였습니다. 그만큼 아픈 교회도 많고 병든 교회도 많기에 던져진 주제인가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와 그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입니다. 미국 교회의 주류 교단들은 300년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목회자들을 잘 돌보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왔지만, 한인교회의 목회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돕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컨퍼런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40명 가량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강의도 듣고, 강의를 통해 생긴 질문들과 목회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는 강사 목사님이 혼자 강의를 주도하며 주입식으로 “내가 목회 해보니 이러더라.”라는 자기 목회 자랑만 늘어 놓는 곳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컨퍼런스는 뭔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도 강의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삼박 사일 내내 참석자들과 함께 소그룹에서 듣고 나누고 대화하며, 동역자로서 함께 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그대로 멘토링을 받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분들도 당신들이 목회현장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갖게 된 질문들과 고민들을 나누면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되었고 안심도 되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지금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씨름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 지내던 제게 다시 하나님의 큰 세계와 접촉하고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 드러지는 삶과 열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내가 동행하지 못한 것이었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참석하시고,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그네들만의 고충과 고민들을 나누는 것을 보며 아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참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건이 안되면 내년에는 아내라도 참석하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나만 누리기엔 아깝잖겠습니까? 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는다면 교회에도 좋은 일일 것이구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팍팍한 이민 생활 가운데 정서적인 건강이 무너지다 보면 영육의 건강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정서적인 건강은 서로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받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할 힘을 얻고 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특권을 누리 감사합니다.